Jet유, 아시아 중심으로 수요증가

2003년 SARS 악재로 위축 ... 2004년 아시아 항공사 성장에 기대

2004년에는 항공기 연료인 제트유 수요가 아시아 지역의 저가 항공사들의 성장에 힘입어 9.11테러가 있었던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Royal Dutch Shell Group의 항공유부문 사비에 르 멩티에 부문장은 12월12일 한해 650억-700억달러인 제트유 수요가 홍콩 국제공항 등의 수요증가로 2004년에는 2%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르 멩티에 부문장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수요가 8-10% 정도 증가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 최근 홍콩 공항의 제트유 수요가 2003년 5월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제트유 시장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여행수요 감소로 세계 제2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 등 상당수 항공사가 파산하고 2003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SARS가 창궐하는 등 악재가 겹쳐 위축됐었다.

<Chemical Journal 2003/12/15>